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요약)

1. 주식 직접투자 증가가 가져온 변화들

- 코로나19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3월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 미국의 로빈후드가 주식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시장 영향력 줄어듦

2. 달러 약세와 신흥국 투자

-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일 때는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의 일임자산에서도 신흥국주식펀드 투자가 늘어났음 이런 자금들은 우리나라주식시장의 외국인 매수로 이어져왔음
- 2020년에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로 주식시장은 강세였지만, 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부진한 상황. 신흥국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

3. IT, 언택트에 강점이 있는 신흥국에 선별적으로 투자

-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펀드 시장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움직임. 부담스러워진 선진국 밸류이션 부담에 미국과 유럽의 주식펀드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펀드로는 자금 유입
-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관련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1달째 자금 유입
- 뉴노멀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은 국가로 유동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음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주식 직접투자 증가가 가져온 변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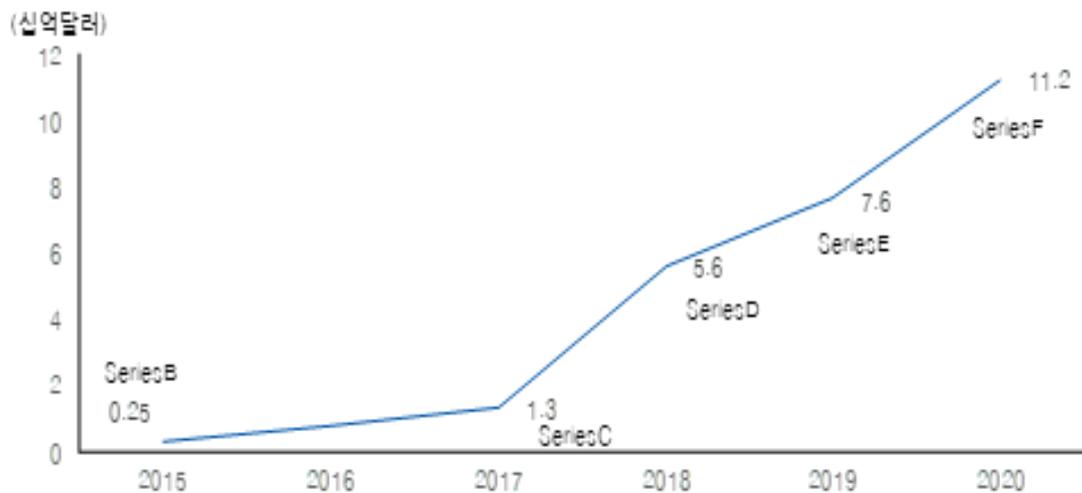
코로나19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3월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미국은 로빈후드, 중국은 부추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지칭하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적극적 참여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바꿔놓을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미국 투자자들은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미국의 투자자들, 특히 젊은 투자자들은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훨씬 선호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종목이 2020년 1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보유 주식수가 줄어들었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강세로 이익실현을 한 영향과 함께, 뮤추얼 펀드 등에서 환매 신청이 많은 것도 주요 이유라 생각된다.

[차트1] 미국 로빈후드의 기업가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달러 약세와 신흥국 주식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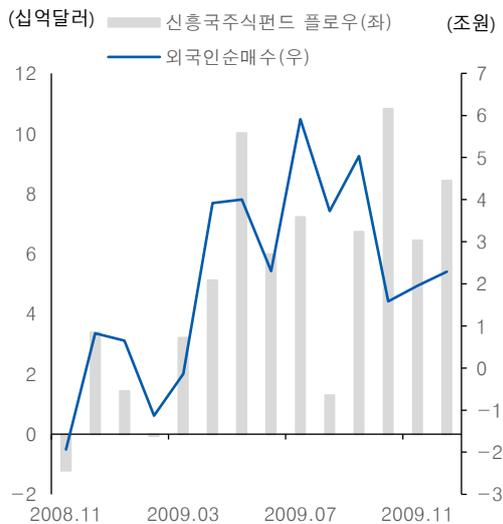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일 때는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의 일임자산에서도 신흥국주식펀드 투자가 늘어났다. 이런 자금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수로 이어지곤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주식펀드(ETF포함)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 당시 신흥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신흥국 주식펀드(ETF포함)로도 자금 유입이 활발했다. 신흥국 주식펀드(ETF포함)로의 자금 유입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졌었다.

2016년에도 전세계 주식펀드(ETF포함)으로 자금 유입 패턴과 신흥국 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패턴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외국인 중에서는 펀드의 비중이 높은 미국이 13.2조원을 매수하였다.

2020년 2분기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자금 유입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차트2] 2009년 신흥국 주식펀드 자금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2017년 신흥국 주식펀드 자금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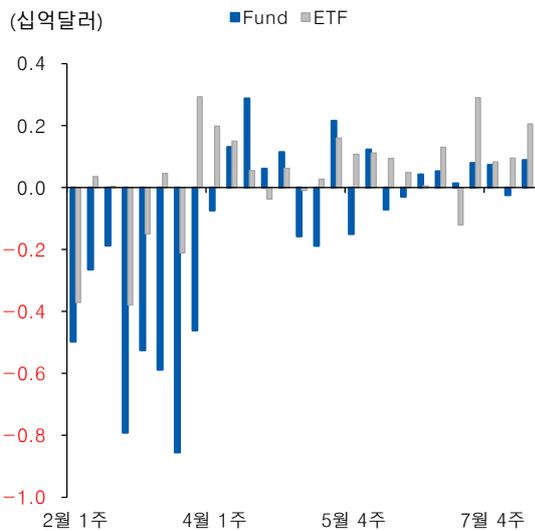
3. IT, 언택트에 강점이 있는 신흥국에 선별 투자

2020년 상반기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자금 흐름도 조금씩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계속된 참여로 주식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펀드 시장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부담스러워진 선진국 밸류이션 부담에 미국과 유럽의 주식펀드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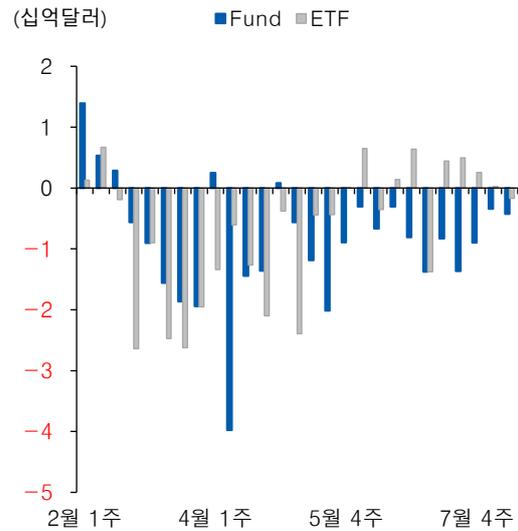
유출이 이어지는 선진국주식펀드와 달리 신흥국주식관련 펀드는 자금 유출이 잦아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관련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1달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입 규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뉴노멀 분야에 경쟁력 있는 IT와 언택트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많은 국가로 유동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차트4]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로 4주 연속 순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신흥국주식펀드와 ETF의 자금유출 규모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